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7

▶ 48회 예고
아쇼까 순행 일행은 수나빠란따국으로 떠난다. 선봉대장이 지형정찰을 떠났다가 사바르마티 강변 해적촌에서 당했기 때문에 아쇼까는 마을 소각작전을 편다. 결국 순행 군사들은 한밤중에 해적촌을 불 질러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린다.



순행 정찰조, 사바르마티강서 수난당해

아쇼까 부왕이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가기 전이었다. 늙은 선봉대장은 한 달 전에 미리 지형 정찰을 떠났다. 정찰조는 10명으로 단출했다. 선봉대장이 직접 군사를 선발했다. 모두가 젊고 무예가 출중했다. 늙은이는 선봉대장과 하인 길잡이뿐이었다. 길잡이는 수나빠란따국으로 가는 상인들을 여러 번 안내한 적이 있는 데바의 말먹이꾼 출신이었다. 길잡이 하인은 숙영할 때마다 선봉대장에게 다가와서 수나빠란따국의 지리를 설명했다.

"수나빠란따국 동쪽으로는 깔링가국이 있고, 동남쪽으로 안드라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꽁까나국이 있습죠. 수나빠란따국 사람들은 얼굴이 숯덩이처럼 검은데 특히 숫빠라까 항구에는 진귀한 보석이나 구슬을 많이 가진 상인부자들이 많습니다요."

"부자들은 무슨 장사를 하는가?"

"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이집트나 바빌론까지 가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발찌 등을 팔아 구리나 바다표범가죽 같은 물건과 바꾸어 온다고 합죠."

"배를 타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그렇습죠. 수나빠란따국은 남쪽을 빼고는 사막과 습지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습니다요.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 바다로 나가 장사를 시작한 것입죠. 해적이나 풍랑과 싸우다 보니 사람들이 거칠고 맹수같이 사납죠."

정찰조 군사들은 하인 길잡이가 안내하는 대로 이동했다. 강이 나타나면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고, 사막 같은 황무지를 지날 때는 오아시스가 있는 길을 선택했다. 하인 길잡이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몇날 며칠을 미로처럼 헤맬지도 몰랐다.

선봉대장은 하인 길잡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그가 안내하는 길에는 이따금 말을 타고 길게 줄을 지어 가는 대상(隊商)들이 지나쳤다. 대상들이 오간다는 것은 웃자인에서 수나빠란따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방증이었다.

웃자인을 떠난 지 닷새만이었다. 정찰조는 벌써 수나빠란따국으로 들어와 숫빠라까 항구 쪽으로 가고 있었다. 군사 한 명이 앞서가다가 돌아와 선봉대장에게 보고했다.

"강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건너야 할 것 같습니다."

선봉대장은 옆에 있는 하인 길잡이에게 물었다.

"보고가 맞는가?"

"예, 사바르마티강입니다요. 군사의 보고대로 수심이 얕은 곳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죠. 사바르마티강만 건너면 바로 숫빠라까입니다요."

하인 길잡이가 선봉대장이 더 묻지 않았는데도 숫빠라까 항구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다. 숫빠라까는 부자들만 사는 수나빠란따국의 상업도시였다. 저절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상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일종의 계획도시였다. 숫빠라까 도시 좌우에는 부가보강과 사바르마티강이 북쪽에서 남쪽 바다로 흘렀는데, 강물은 인공수로를 통해 저수조에 갇히거나 숫빠라까 도시를 관통해서 흘렀다. 따라서 상인들의 배가 숫빠라까 도심까지 들어가서 정박하거나, 배를 수리하는 도시 안의 조선소로 갈 수 있었다.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또 물었다.

"숫빠라까는 왜 바닷가에 있지 않고 강 옆에 있는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죠."

"이유가 있다는 말인가?"

"예, 대장님. 숫빠라까가 길쭉한 자루 같은 강 옆에 있는 이유가 있습죠."

"해적들 때문인가?"

"아닙죠. 해적들 때문이라면 바닷가나 강이나 마찬가지입죠. 해일 때문입니다요. 바닷가에 해일이 덮치면 배고 사람이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가 버립죠. 그래서 도시가 강 옆으로 올라간 것입니다요."

"그럴 수 있겠군."

뭍에서만 살아왔던 선봉대장은 숫빠라까 도시가 강 옆에 만들어진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다. 숫빠라까는 해항(海港)이 아니라 강항(江港)인 셈이었다. 선봉대장이 이끄는 정찰조 군사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걸었다. 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막이나 다름없는 황무지가 나타났다.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을 뿐 풀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말먹이를 찾으려면 빨리 벗어나야 할 황무지였다. 바다 쪽에서 뜨거운 열풍이 불곤 했는데 흙바람으로 바뀌어 눈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강을 낀 곳에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마을 몇 개가 보였다.

"마을에서 배를 빌려 타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마을에는 숫빠라까에 사는 부자들의 하인만 살고 있습죠. 부자들이 장사하는 보석을 가공하는 천민들인데 성질이 흉악해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요."

"그래서 이들을 피해가고 있는 것인가?"

"예, 마을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요. 보석을 훔치러 오는 해적을 막기 위해서죠."

서쪽하늘에 노을이 나타났다. 노을은 순식간에 화염처럼 번졌다. 새들이 바람에 날리는 불티처럼 어지럽게 하늘을 날았다. 선봉대장이 정찰조에게 지시했다.

"숙영지를 찾아라."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라면 마을이 없어서 안전합죠."

하인 길잡이가 정찰조 군사의 보고에 동조했다. 선봉대장은 강물 소리가 들리는 언덕 밑에 정찰조 군사들을 풀었다. 정찰조 군사들은 수통에 강물을 떠온 뒤 화톳불을 피웠다. 뜨거운 물에 보릿가루와 소금을 넣으면 한 끼가 되었다. 화톳불 연기가 사바르마티강 너머로 퍼졌다. 선봉대장은 한 끼를 해결하고 나서는 화톳불 옆에서 졸았다. 나이 들어 체력이 약해진 탓에 자리에 주저앉기만 하면 눈을 감았다. 군사 두 명은 좌우로 멀리 나가 경계를 섰고, 나머지 군사들은 강둑으로 말들을 데리고 가서 배불리 수초를 뜯겼다.



달이 잠깐 떴다가 사라졌다. 별이 몇 개 반짝거렸지만 캄캄한 밤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찰조 군사들이 하나 둘 화톳불 주위로 모여들었다. 화톳불이 꺼질 무렵에는 모두가 잠에 깊이 떨어졌다. 하인 길잡이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지만 잠을 깬 군사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언덕 뒤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정찰조 군사들을 덮쳤다. 선봉대장 뿐만 아니라 정찰조 군사 모두가 눈 깜작할 사이에 당했다. 도둑 떼나 다름없는 무리였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하인 길잡이가 선봉대장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언덕 뒤쪽에 마을이 생긴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습죠."

하인 길잡이가 말을 하자, 무리 중에 칼을 든 사람이 다가와서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다. 하인 길잡이가 비명을 지르며 나무토막처럼 나뒹굴었다. 선봉대장과 정찰조 군사들은 칼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손이 묶였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때는 긴 헝겊으로 얼굴까지 가렸다. 하인 길잡이는 다리를 절었으므로 뒤처졌다.

정찰조 군사들은 언덕 뒤쪽 마을로 끌려갔다. 꼭두새벽인데도 마을사람들이 몰려나와 정찰조 군사들에게 욕을 했다. 마을사람들이 다 모이자, 추장이 말했다.

"이 자들은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렸던 도둑놈들이다. 이놈들은 말을 타고 멀리서 온 도둑들이니 죽여도 상관없다."

하인 길잡이가 애원했다.

"이보시오. 우리들은 숫빠라까로 가는 아반띠국 군사요. 부왕님이 오시기로 해서 먼저 와본 것뿐이오."

"이놈아, 통행증도 없이 들어왔으니 도둑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추장의 발길질에 하인 길잡이가 비명을 지르며 또 쓰러졌다. 이에 군사 한 명이 소리쳤다.

"우리들은 부왕님의 명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저 고약한 놈부터 죽여라."

추장이 지시하자,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차가운 소리가 났다. 정찰조 군사가 끌려가면서 몇 번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곧 조용해지고 말았다. 선봉대장은 위험을 느끼고 부하들을 달랬다.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 반항하지 말라."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헝겊에 빛이 느껴졌다. 선봉대장과 정찰조 군사들은 큰 창고에 갇혔다. 마을사람 두 명이 창고 문을 지켰다. 아침 일찍 머리카락이 허연 선봉대장과 하인 길잡이만 빼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끌려 나갔다. 창고 문지기들이 말했다.

"부자상인들에게 저놈들을 노예로 팔면 제법 받을 거야."

"저놈들은 바다에서 노를 젓다가 늙어 죽거나 해적에게 붙잡혀 죽겠지."

"이 늙은이들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팔려가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보아서 도망치자."

"대장님, 기회가 오겠습니까?"

"뒤로 묶인 손만 풀리면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도둑놈들이 대장님이나 저를 굶겨 죽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인 길잡이가 틈만 나면 입으로 선봉대장 등 쪽으로 가서 두 손을 묶은 끈을 물어뜯었다. 3일 만에 끈이 느슨해졌다. 이제는 선봉대장 혼자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날 밤 선봉대장은 끈을 풀었다. 뒤로 맨 하인 길잡이의 끈도 느슨해졌다. 뒤에서 손만 빼면 바로 팔을 휘두를 수 있었다. 이윽고 하인 길잡이가 문지기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를 굶겨 죽일 셈이오? 배고파 죽겠소. 물이라도 좀 주시오."

"너희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문지기가 한 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하인 길잡이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선봉대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문지기를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재빨리 입을 틀어막았다. 그런 뒤 그의 급소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켜버렸다. 선봉대장이 재빨리 문지기의 옷으로 바꾸어 입었다. 창고 문지기로 변장한 선봉대장이 하인 길잡이에게 쓰러져 있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하인 길잡이가 다리를 절룩거리기 때문에 함께 탈출 작전을 펼 수는 없었다.

"손을 뒤로 하고 옆으로 누워 있거라."

"예, 대장님."

잠시 후, 선봉대장이 창고 문을 두드렸다. 창고 문지기가 또 들어와 살피더니 쓰러져 있는 하인 길잡이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내일 아침에는 추장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했는데. 또 한 놈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선봉대장이 또 다시 창고 문지기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제야 하인 길잡이도 문지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저놈들을 죽여버리고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놈들이 깨어났을 때는 우리는 벌써 수나빠란따국을 벗어나 있을 것이다."

"자비는 대장님께서 베푸십니다요."

"자, 여기를 어서 빠져나가자."

두 사람은 문지기의 칼을 빼앗아 옆구리에 차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입구 추장의 집에는 말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었다. 말먹이꾼 출신인 하인 길잡이가 말을 살살 달래가며 끌고 나왔다. 말에 먼저 올라탄 하인 길잡이가 말고삐를 쥐었다. 선봉대장도 말 등에 날렵하게 뛰어서 탔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반띠국 웃자인을 향해서 달렸다. 한참 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땀을 비 오듯 흘렸다. 쏜살같이 달리는 말도 안개와 땀에 젖어 갈기와 목덜미가 축축해졌다.〈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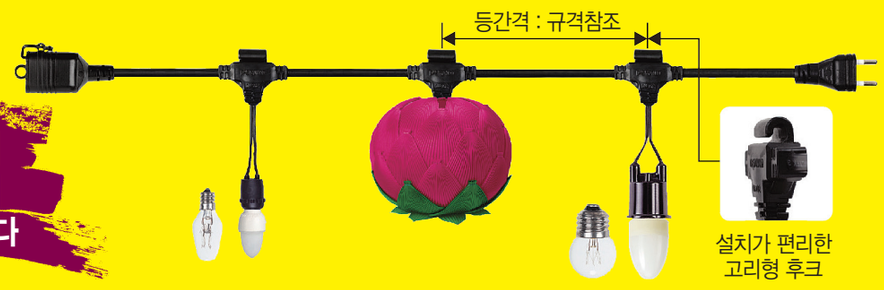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 외곽용 26E | ISO9001 | ISO1400 |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 ISO 9001 인증기업 |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